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동물속담을 통한 한·중 문화의 비교

-한·중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조 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정숙

동물속담을 통한 한·중 문화의 비교

-한·중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The 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animal proverbs

2014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조 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정숙

동물속담을 통한 한·중 문화의 비교

-한·중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The 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animal proverb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조 로



국 문 초 록

동물속담을 통한 한·중 문화의 비교

—한·중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조 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중 양국은 물고기와 물처럼 서로 돕고 사이가 좋은 편으로 지금 양국 사이의 경제와 문화 등 영역에서 광범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교류와 협력의 매개는 언어이다. 지금 언어는 점점 중요시 된다. 언어는 민족 문화의 한 부분이고 또한 민족 문화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속담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여러 각도에서 내용이 다듬어지고 민족 전통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속담 속에 많이 나타나는 동물들을 통해서 민중의 의식을 알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동물 관련 속담 비교를 통해 양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속담 속에 들어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속담 중에서 동물과 관련한 속담을 찾아 목록을 정리하고 자주 등장하는 동물속담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국 속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문화의 차이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조사를 하였다

제1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한·중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속담 교육을 하다는 것을 밝혔다.

제2장에서 속담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한·중 속담의 구성 형식과 내용을 비교해보았다.

제3장에서 한국 내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속담 책 3 종,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교육용 속담을 살펴보고 이 모든 자료에 제시된 교육용 속담 중 속담 속에 동물이 등장 하는 속담을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으로 뽑았다.

제4장에서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을 첫째, 한·중 같은 소재 같은 의미의 동물속담 둘째, 한·중 같은 소재 다른 의미의 동물속담 셋째, 한·중 다른 소재 같은 의미의 동물속담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중 양국 속담 중에서 동물속담의 상징의미를 분석하여 차이를 제시하고 동물의 문화 속성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양국 동물속담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한·중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속담, 동물속담, 문화, 중국인 학습자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1.2 선행연구	2
1.3 연구방법	4
II. 속담의 개념과 특징	6
2.1 속담의 개념	6
2.2 속담의 특징	7
III. 한·중 동물속담 목록 정리	9
3.1 한국 내 한국어교재의 동물속담 목록	10
3.1.1 한국 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11
3.1.2 한국 내 한국어 속담 전문 교재에 나타난 속담	19
3.2 중국 내 한국어교재의 동물속담 목록	35
IV. 한·중 동물속담의 비교	44
4.1 소재와 내용 비교	44
4.1.1 같은 소재 같은 의미	44
4.1.2 같은 소재 다른 의미	46
4.1.3 다른 소재 같은 의미	47
4.2 상징의미 비교	56
4.2.1 호랑이	56
4.2.2 개	65
4.2.3 쥐	73
V. 결론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3
中文摘要	85

표 목 차

<표 1> 동물의 종류와 빈도수	9
<표 2> 출현 동물의 종류	9
<표 3> 한국 내 한국어교재 속에 나타난 동물속담	11
<표 4>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13
<표 5>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14
<표 6>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16
<표 7> 『살아있는 한국어(속담 편)』에 수록된 동물속담 목록	20
<표 8>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에 수록된 동물속담 목록	20
<표 9> 『속담 100, 관용어 100』에 수록된 동물속담 목록	21
<표 10> 한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총목록	22
<표 11>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목록	26
<표 12>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난이도 비교	28
<표 13> 한국 내 한국어 속담 전문 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총목록	32
<표 14> 한국 내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 총목록	33
<표 15> 중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35
<표 16> 중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36
<표 17> 중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37
<표 18>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동물속담 목록	38
<표 19> 중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목록	39
<표 20> 중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난이도 비교	40
<표 21> 중국 내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 총목록(가나다순)	41
<표 22> 한·중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동물속담의 난이도 비교 목록	42
<표 23> 호랑이를 소재로 한 속담 목록	60
<표 24> 개를 소재로 한 속담 목록	70
<표 25> 쥐를 소재로 한 속담 목록	76

I. 서론

1.1 연구 목적과 의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을 중국의 속담과 소재 및 내용, 상징 의미 면에서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예부터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서 중국의 고사 성어나 속담 등이 한국으로 들어와 비슷한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민족성이 있고 생활 방식과 풍습, 사상,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양국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속담도 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양국의 교류가 커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인은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한국에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2000년대 중후반에 크게 늘어났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은 한국어 발음, 어휘,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면적 의미만으로 해석이 어려운 것은 중국인 학습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한국인의 사고와 사상, 생활 방식, 풍습 등이 녹아 있는 관용 표현이나 속담이 그 예이다.

(1) 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1 가)는 깊은 산 속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제 말을 하면 온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야기 대상자가 없다고 함부로 흥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중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사용하는 속담 ‘說曹操, 曹操到’가 있다. 이것은 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조가 온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사용한 속담이지만 중국에서는 역사적 인물 ‘조조’를 비유적으로 사

용한다.

(1 나)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먹을 것이 뻔하다는 의미로 어떤 일이나 사물을 믿지 못 할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중국어는 ‘曠癡喂看鷄, 槌看槌滄’이다. 족제비에게 닭을 맡아 보게 하니 닭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다. 믿을 수 없는 대상을 한국어에서는 ‘고양이’로, 중국어에서는 ‘족제비’로 비유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한국어 속담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속담의 내면의 의미 이해가 중요한데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 풍습과 문화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어 속담과 비교를 통해 의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양국의 사상과 역사, 문화의 비교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을 정리하여 중국어와 비교하는 가운데 동물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동물 상징 의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필 수 있다. 속담은 그 언중의 지혜와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 표현에 담긴 동물을 통해 풍자와 해학을 엿볼 수 있다. 동물속담 비교의 결과와 상징 의미 분석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1.2 선행연구

한국과 중국의 속담 연구는 지금까지 언어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학, 민속학, 심리학, 사회학 측면에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속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기문에 의해 『속담사전』(1962)이 편찬되었으며, 이후 속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많은 연구물이 나오게 되었다.¹⁾

김미선(1997)에서는 속담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속담을 통한 중국어 교육법을 조항록(1998)에서는 속담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배경 어휘를 제시하고 고급 과정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법을 논의하였다. 김윤수(2001)에서는 중국 현대 상용 속담으로 사회, 언어, 생활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중국어 속담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1) 조재윤.(1988). 「한국 속담의 구조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이후 한국과 중국의 속담 비교 및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배재홍(2001)에서는 중국의 헨후어(歇後語)²⁾를 중심으로 여러 속담들을 대조 비교하였으며, 속담의 개념, 특징 및 내용상에서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비교 하는 가운데 양국의 속담에서 알 수 있는 사상이나 생활습관, 문화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속담 안에서 생활 및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김정아(2002)의 논문에서는 속담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국어학이나 국어교육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속담의 활용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속담의 정의,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네 곳의 대학 부설기관과 사설학원 한 곳의 중·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속담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파악, 제시하였다. 이진선(2006) 논문에서도 속담으로 한국과 중국의 특성을 파악해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자(2002)에서는 속담의 단계별 교육지도법을 논하였으며, 조현용(2007)에서는 문화적 측면의 속담 교육을 논하면서, 표현용 속담과 이해용 속담으로 나누어 설명 하고, 해석 중심의 어휘 학습법에서 ‘어원을 통한 어휘교육’을 제시해보였다. 장지정(2008)에서는 한·중 양국의 속담을 주제별로 비교 분석하여, 문화적 차이를 추출하였으며, 이 논문에서 역시 단계별 속담교육을 말하였다. 위 세 논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속담 교육 연구로서,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중국인 연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연구자에 의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왕몽각(2007)과 이극(2008)에서는 양국의 속담 비교 연구를 하였다. 동물을 소재로 하는 속담에 대한 비교 연구로, 류병천(2009)에서는 ‘호랑이’ 소재 속담을, Leng Li-Na(2009)에서는 ‘개’와 ‘고양이’ 소재 속담을, 동흠(2010)과 뿌팅(2013)에서는 ‘개’ 소재 속담을, 호녕녕(2011)에서는 ‘말’ 소재 속담을, Zhang Yan-ci(2013)에서는 ‘개’와 ‘닭’ 소재 속담을, 왕곤(2013)에서는 ‘쥐’ 소재 속담을, 이영(2013)에서는 ‘암컷’과 ‘수컷’ 관련 속담을, Tian Yuan(2014)에서는 ‘개, 소, 호랑이, 닭’ 소재 속담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외에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로 Zang Chunmei(2005)에서는

2) 『쑹쑹 중국어 헨후어 알아?』 헨후어란 앞부분만 말하고 결론을 대담하게 생략하는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속담이다. 말 속에 그 의미하는 바를 따로 숨기고 있는 표현으로, 중국인의 발상, 유머감각을 반영하여 대화를 부드럽게 해주는 실생활에 흔히 쓰이는 말.

한·중 동물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 대하여, 호심(2012)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동물 비유 표현 교육 연구를, 단천천(2014)에서는 ‘호랑이’ 소재 속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의 속담 비교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속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 동물 소재 속담의 비교 연구에서 범위를 좁혀 ‘개’, ‘고양이’, ‘호랑이’ 등 한 두 동물에 집중하여 비교 및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 및 유사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속담은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금도 한국어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물속담을 정리하고 동물의 상징 의미를 비교, 대조하여 문화적 의미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속담 가운데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을 정리하고 자주 등장하는 동물속담을 중국어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만하다. 나아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2장에서는 속담의 개념 및 특징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속담 전문교재 3 종, 중국에서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교육용 속담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에 제시된 교육용 속담 중 속담 속에 동물이 등장 하는 속담을 한국어 교육용 동물 소재 속담으로 정리한다. 제4장에서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을 분류하고 분석한다. 분류는 첫째, 한·중 같은 소재 같은 의미의 동물속담 둘째, 한·중 같은 소재 다른 의미의 동물속담 셋째, 한·중 다른 소재 같은 의미의 동물속담으로 한다. 그리고 동물속담의 상징의미를 분석하여 차이를 제시하고 동물의 문화 속성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동물속담의 비교 분석 결과는 양국의 역사적, 사회

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II. 속담의 개념과 특징

2.1 속담의 개념

속담이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고 구비전승을 통해 전해지며, 성현들이나 작가, 지식인들의 명언이나 고서 등에서 인용되는 것은 물론, 오늘날 일정한 형태 속에 향간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속담이 언제 발생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문자 발명 이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³⁾ 사전에서 한국 속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속담이란 어떤 사실을 비유로 서술하는 데 쓰이는 관용어구(최창렬, 『우리 속담 연구』)
-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格言. 俗諺 속된 이야기, 俗說 (이희승, 『국어대사전』)
-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나 그것이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감을 얻고 널리 퍼져서 온 민족에게 공통된 격언(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 민간에 전해 오는 쉬운 격언. 속된 이야기(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언속(言俗).(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속담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俗語’인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 谓通俗流行之语(통속적이고 널리 유행하는 말을 지칭한다.)
 - － 「中文大辞典」 台湾 中华学术院 中华民国62年(1973) p.1041.
- 人民口里常用的现成的话, 谚语类似成语, 但口语性强, 通俗易懂,

3) 최창렬.(1999).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p.10-14.

而且一般都表达一个完整的意义，形式上差不多都是一二个短句，都是人民在生活实践中总结出来的带有实际经验的话。(대중의 입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며, 成語와 유사하지만 구어성이 강하여 통속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표현하고, 형식적으로 보면 한두 개의 단구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 실천 중에서 얻은 실천 경험을 담은 말이다.)

— 「中国大百科全书」, 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1988.

한국과 중국의 속담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속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즉, 대중 모두가 사용하는 말이며, 유행을 타기도 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과 풍자가 담겨있다. 또한, 구비문학의 형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는 모두 한국과 중국 속담의 공통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속담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속담이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 교훈이나 비판, 풍자 등이 담겨 있는 일정한 형태의 비유적 구문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2.2 속담의 특징

일상적 언어와 달리 비교적 고정된 형태로 오래 전부터 일반 대중들이 사용해 온 속담의 특징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김문창(1979)은 ‘속담은 형식상 극히 단순 간결하며 수사법상 풍부한 은유와 상징이 특징이며 내용상 민족성, 인생관, 시대상, 사회상, 향토성 등을 반영하고 기능상 민족의 신념, 세태의 풍자 등 일반 대중의 생활철학을 반영하고 사용자층이 광범위하고 사용 빈도수가 높으며 분포 상 제약이 없다’고 했다⁴⁾ 심재기(1982)는 속담이 지닌 민속자료로서의 특성으로 비속성, 일상성, 수의성, 편의성, 서민성, 냉소성을 들었다.⁵⁾ 최창렬(1999)은 속담이 생성된 사회의 소산물이며 향토성, 시대상 언중들의 생활 철학을 반영하며 간결하고 세련된 언어 형식을 취하

4) 김문창.(1979). 「속담론 서설」. 『강원대학교 논문집 제 13집』, 강원대학교. p.97.

5) 심재기.(1982).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 11집』, 서울대학교. p.234-241.

고 있음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해주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⁶⁾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속담의 특징은 첫째,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상과 향토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문(1997)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속담은 그 사회 대중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 둘째, 속담은 그 민족의 민족성과 생활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속담은 간결하며 풍부한 비유와 은유의 수사법이 사용되어 있다. 만약 속담이 길고 장황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오랜 세월동안 구전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짧은 어구나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거의 변화 없이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에서 ‘고래’는 힘이나 권력이 강한 자들을 비유하고 ‘새우’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비유한다. 넷째, 속담은 그 내용에 교훈, 비판, 풍자를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뱀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은 자신의 능력이나 분수에 넘치는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게 된다는 풍자와 교훈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속담은 비속성, 중의성 등의 특징이 있다.

우리들은 흔히 속담에서 교훈, 풍자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속담은 한 민족의 삶의 방식, 문화를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속담을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면 그 민족의 문화, 풍자성, 사회성 등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6) 최창렬. 앞의 책, p16-17.

Ⅲ. 한·중 동물속담 목록 정리

속담 안에는 민중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그리고 민중들의 감정, 해학도 엿볼 수 있으며, 속담을 통하여 당시 민중들의 생활의식을 이해 할 수 있다. 즉 속담은 한 민족의 문화와 풍속을 통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한자문화권이며, 또한 한국과 중국 모두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왔었다. 이 때문에 양국 사이에는 공통된 민족 문화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문화교육 측면에서는 속담을 통해 학습자에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에 나타나는 동물의 종류와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⁷⁾ 이 기문의 「속담사전」, 한국 민속학회의 「한국속담집」, 김도환의 「한국 속담 활용 사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6000여 개의 속담 가운데 등장하는 동물의 수는 모두 1579개였다. 동물인 1579 종은 전체 속담 가운데 26% 해당하는 것이다.⁸⁾

< 표 1 > 동물의 종류와 빈도수

동물종류	포유류	조류	곤충류	어류	상상류	갑각류	파충류	거미류	양서류	기타	계
빈도수 (개)	861	294	111	89	75	36	35	25	23	30	1579
비율(%)	55	19	7	6	4	2	2	2	1	2	100

< 표 2 > 출현 동물의 종류

분류	동물명 *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
포 유 류 (861개)	개(233),호랑이(149),소(117),말(87),고양이(60),쥐(59),돼지(30),토끼(25),당나귀(10),족제비(9),나귀(9),여우(8),원숭이(7),사슴(7),노루(7),곰(60),고슴도치(5),염소(5),양(4),고래(4),코끼리(3),이리(3),스라소니(2),고라니(2),담비(2),너구리(2),늑대(2),다람쥐(1),사자(1),살쾡이(1),오소리(1)
조 류	닭(64),새(48),까마귀(40),꿩(34),기러기(14),매(13),참새(11),비둘기(8),황새(7),부엉이(5),오리

7) <표1> 와 <표2> 尹銀源.(1999). 「동물을 소재로 한 한국 속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8) 위의 논문.

(294)	(5),학(5),까치(4),솔개(4),앵무새(30),원앙(3),제비(3),갈까마귀(2),공작(2),백로(2),뱀새(2),빠꾸기(20),따오기(2),고니(1),꼬꼬리(1),독수리(1),두견새(1),딱따구리(1),보라매(1),솔개(1),솔개미(1),올빼미(1),왜가리(1),종달새(1)
곤충류 (111개)	파리(21),벼룩(12),굴뚝이(9),나비(9),벌레(8),빈대(7),이(5),누에(4),모기(4),송충이(4),구더기(3),귀뚜라미(3),메뚜기(3),딱정벌레(2),벌(4),자벌레(2),잠자리(2),나방(2),거저리(2),날나리(1),매미(1),바구미(1),사마귀(1),풀췌기(1),하루살이(1)
어류(89개)	물고기(38),이어(6),마꾸라지(6),송사리(5),망둥이(4),뱀장어(4),복어(4),조기(3),메기(3),실뱀(2),자가사리(2),준치(1),피라미(1),갈치(1),금붕어(1),꿀뚜기(1),넙치(1),멸치(1),명태(1),민어(1),붕어(1),생선(1),숭어(1)
상상류 (75개)	용(32),도깨비(18),봉황(10),용마(4),용왕(3),교룡(2),이무기(2),기린(2),봉(1),불가사리(1)
갑각류 (36개)	게(19),가재(11),새우(5),거드래기(1)
파충류 (35개)	뱀(15),구렁이(8),거북이(3),독사(3),자라(3),남생이(1),능구렁이(1),두꺼비(1)
거미류 (25개)	개미(17),거미(8)
양서류 (23개)	개구리(15),두꺼비(5),맹꽁이(1),머구리(1),악머구리(1)
기타(30개)	조개(6),좁(4),지네(3),달팽이(3),낙지(2),소라(2),노래기(2),문어(2),꿀뚜기(1),우렁(1),굴(1),옴(1),거머리(1),산호(1)

위의 표를 보면 속담 속에 동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동물이 일상생활 문화에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외국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한국 사회생활이 더 빨리 진입 할 수 있다.

3.1 한국 내 한국어교재의 동물속담 목록

교재는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속담이 제시된 교재와 자료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교재 속에 제시된 설명과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한국 내 한국어 교재와 중국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동물속담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3.1.1 한국 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①김영자(200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에서는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재 (1997년 초급, 중급, 고급),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 (1997년 판 1-6권),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1998년 판 1-6권),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재 (2001년 판 6권),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1997년 판 1-6권)에 나타난 동물속담을 제시하고 있다.⁹⁾ 이것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 표 3 > 한국 내 한국어교재 속에 나타난 동물속담 (김영자, 2002)

학교	단계	속담	개수	총수
경희대학교	초급	없음	6	41
	중급	오리발 내밀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우물 안 개구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급	없음		
고려대학교	초급	없음	9	
	중급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고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꿩 대신 닭. 개천에서 용 난다 . 우물 안 개구리		
연세대학교	초급	없음	1	
	중급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고급	없음		
선문대학교	초급	없음	13	
	중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9) 김영자. (2002)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우물 안 개구리.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고급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서울대학교	초급	없음	12	
	중급	없음		
	고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우물 안 개구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꿩 먹고 알 먹는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독 안에 든 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② 조문선(2013)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에서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교재1-6권,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1-6권,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1-6권 나타난 동물속담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¹⁰⁾ 김영자(2002)의 논문과

10) 조문선. (2013)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 경인교육대학교 석사 논문.

비교해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교재의 변화가 있다. 특별히 연세대의 새로운 교재에는 동물속담이 많이 늘어났다.

< 표 4 >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조문선, 2013)

학교	단계	속담	개수	총 수
연세대학교	초급	없음	12	21
	중급	쇠귀에 경 읽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급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 꿩 대신 닭.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개천에서 용 났다. 서당 개 삼년에 풍월을 한다 (읊는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고려대학교	초급	없음	9	
	중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물 안 개구리. 꿩 대신 닭. 개천에서 용 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고급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 가재는 게 편 .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기.		

③ 주지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연구」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재(2003년,1-6권),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재(2006년, 초급 I II, 중급 I II, 고급 I II),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재(2005년,1-6권),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재

(2001년, 1-6권), 나타난 동물속담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¹¹⁾ 여기에서는 경희대 김영자(2002)와 비교했을 때 경희대 교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즉, 10여년 전 교재에 비해 동물속담이 많이 늘어났고 고급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 표 5 >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주지연, 2013)

학교	단계	속담	개수	총 수
서울대학교	초급	없음	11	50
	중급	우물 안 개구리.		
	고급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꿩 먹고 알 먹는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독 안에 든 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경희대학교	초급	없음	14	
	중급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닭 잡아먹고 오리 발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급	꿩 먹고 알 먹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11) 주지연. (2012)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게 눈 감추듯이.		
연세대학교	초급	없음	12	
	중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짝 잃은 기러기가 슬피 울며 날아간다.		
	고급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 우물 안 개구리.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쇠 귀에 경 읽기. 쥐 꼬리만한 월급.		
선문대학교	초급	없음	13	
	중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고급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④ 바야르 에르테네(2014년)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동물속담 교육 연구」
 에서는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재(2005-2010년, 1-6권),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재
 (2000-2003년, 초급 중급 고급),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재(1989-2003,년1-6권),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재(2006-2008년, 1A1B,2A2B,3A3B,4A4B,5A5B), 선문대학

교 한국어교재(2001년, 초급, 중급, 고급),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2006년, 1-6권), 신라대학교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2006년, 1-6권),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2008-2010년, 1-5권),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재(2005년, 1-6권),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재(2007-2009년, 1-6권)에 나타난 동물속담을 정리하였다. 다른 연구에 비해 많은 교재를 조사하였는데 동물속담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

< 표 6 >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바야르 에르테네, 2014)

학교	단계	속담	개수	총수
건국대학교	초급	없음	13	102
	중급	우물 안 개구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급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쇠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양이 쥐 생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가재는 게 편이다 . 죽 쑤어 개 준다.		
경희대학교	초급	없음	14	
	중급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쇠귀에 경 읽기.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하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2) 바야르 에르테네.(2014).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동물속담교육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고급	꿩 먹고 알 먹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고려대학교	초급	호랑이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14	
	중급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소귀에 경 읽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고급	개천에서 용 난다. 꿩 대신 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		
선문대학교	초급	없음	13	
	중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고급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성균관대학교	초급	없음	18
	중급	꿩 먹고 알 먹는다. 소 닭 보듯.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고급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가재는 게 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난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신라대학교	초급	없음	11
	중급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꿩 먹고 알 먹는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고급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서울대학교	초급	없음	7
	중급	우물 안 개구리.	
	고급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다.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친다.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된다. 쇠귀에 경 읽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연세대학교	초급	없음	12	
	중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고급	우물 안 개구리.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우물 안 개구리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쇠귀에 경 읽기.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3.1.2 한국 내 한국어 속담 전문 교재에 나타난 속담

다음에는 한국어 속담 전문 교재 『살아있는 한국어:속담』,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에 제시된 동물속담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먼저 『살아있는 한국어:속담』은 전체 60과로 구성되다 이 책은 속담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와 생활을 알 수 있도록 소개되어있다. 먼저 그림을 제시하여 대화문을 학습하기 전에 해당 속담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한국의 생활을 반영한 대화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당 속담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다음 해당 과에서 배운 속담을 이용하여 제시된 문장 속에서 적절한 형태로 넣는 연습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해당 속담을 이용한 짧은 글이나 여러 가지 게임 등을 소개하여 말하기 활동을 통해 더욱 친숙하게 속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하면 이 교재는 ‘그림 제시→대화→연습해요→함께해요→종합연습’ 5단계에 걸쳐서 한국어와 문화를 보다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 대부분의 상황에서 중국어와 비슷한 표현의 비슷한 속담

13) 조주동.(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이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림 제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한국문화에 관심을 더 갖게 되어 속담을 빨리 활용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동물속담은 다음과 같다.

< 표 7 > 『살아있는 한국어(속담 편)』에 수록된 동물속담 목록(11개)¹⁴⁾

	속담	개수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우물 안 개구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하룻강아지도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꿇 먹고 알 먹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꿇 대신 닭. 쇠귀에 경 읽기.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11
총수		11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는 2권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재의 구성은 먼저 속담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본 표현 3개를 제시 하였다. 또 속담의 의미와 어휘 공부할 때 모두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산책’에서 속담과 관련 있는 한국문화를 설명 한다. 이런 부분은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표 8 >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에 수록된 동물속담 목록(25개)¹⁵⁾

	속담	개수
1권	꿇 대신 닭.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12

14) 김선정. 김성수 외. (2007). 『살아 있는 한국어:속담』, 랭지플러스.

15) 최권진.(2006).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1,2』, 한국문화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쇠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우물 안 개구리.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2권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개 팔자가 상팔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지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자리면 산다.	13
총수		25

마지막으로 『속담 100, 관용어 100』에 제시된 동물속담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책으로 외국인들이 속담과 관용어를 익히고 이를 실제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책의 일러두기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실제 활용도가 높은 속담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

< 표 9> 『속담 100, 관용어 100』에 수록된 동물속담 목록 (20개)¹⁷⁾

	속담	개
--	----	---

16) 임혜진. (2007) . 「학습자 수준별 관용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의미 투명도와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17) 김정화 외.(2002) 『속담 100 관용어 100』, 국제교육진흥원.

		수
	가재는 게 편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양이 앞에 쥐. 꿇 대신 닭.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독 안에 든 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쇠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우물 안 개구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지렁이도 뱉으면 꿈틀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20
총수		20

위에서 정리한 한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목록을 모두 모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 표 10 > 한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총목록

학교	속담	개수	총수
경희대학교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17	125

	닭 잡아먹고 오리 발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꿩 먹고 알 먹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개 눈 감추듯이. 우물 안 개구리. 쇠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고려대학교	호랑이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쇠 귀에 경 읽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 꿩 대신 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	14	
연세대학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소 잃은 후에 외양간 고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우물 안 개구리.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23	

	우물 안 개구리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쇠 귀에 경 읽기. 개천에서 용 났다. 서당 개 삼년에 풍월을 한다 (웁는다). 송충이는 술있을 먹어야 산다. 입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 꿩 대신 닭.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짝 잃은 기러기가 슬피 울며 날아간다.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쥐 꼬리만한 월급.		
선문대학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토끼 둘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13	
서울대학교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우물 안 개구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꿩 먹고 알 먹는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웁는다.	16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독 안에 든 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쇠귀에 경 읽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건국대학교	우물 안 개구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고양이가 목에 방울 달기.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쇠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양이가 쥐 생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가재는 게 편이다 . 죽 쑤어 개 준다.	13	
성균관대학교	꿩 먹고 알 먹는다. 소 닭 보듯.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가재는 게 편.	18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난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신라대학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꿩 먹고 알 먹는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11	

< 표 11 >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목록

	속담	총수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닭 잡아먹고 오리 발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꿩 먹고 알 먹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48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 우물 안 개구리. 쇠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 꿩 대신 닭.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짹 잃은 기러기가 슬피 울며 날아간다. 쥐 꼬리만한 월급. 토끼 돌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독 안에 든 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가재는 게 편이다 . 죽 쑤어 개 준다. 소 닭 보듯.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	--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란다. 까마귀가 겁어도 살은 희다.	
총수		48

다음으로 정리한 것은 한국 내 한국어교재의 급별로 나타난 동물속담 목록이다. 이것으로 속담 별 난이도를 알 수 있다.

< 표 12 > 한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난이도 비교

속담	학교																								총 수
	경희대			고려대			연 세대			선문대			서 울대			건 국대			성균관대			신라대			50
	초 급	중 급	고 급	초 급	중 급	고 급	초 급	중 급	고 급	초 급	중 급	고 급	초 급	중 급	고 급	초 급	중 급	고 급	초 급	중 급	고 급	초 급	중 급	고 급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				○		○				○				○				○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한다.		○										○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			○					○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			○										○			○			○				
닭 잡아먹고 오리발이다.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지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자리면 산다. 가재는 게 편이다. 고양이 앞에 쥐. 독 안에 든 쥐. 지렁이도 뱉으면 꿈틀한다.	
총 수		32

위에서 정리한 한국 내 한국어 교재 속의 동물속담을 모두 모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총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 14 > 한국 내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 총목록(가나다순)

연번	속담(총)
(ㄱ)	
	개 팔자가 상팔자. 가재는 게 편이다.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까마귀가 겁어도 살은 희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꿩 먹고 알 먹고. 꿩 대신 닭.
(ㄴ)
날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ㄷ)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독 안에 든 쥐.
(ㄹ)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난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
(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지다.
(ㅇ)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쇠 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소 닭 보듯.
(ㅇ)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입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물 안 개구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ㅈ)
지렁이도 뱉으면 꿈틀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 짝 잃은 기러기가 슬피 울며 날아간다. 쥐 꼬리만한 월급.

죽 썰어 개 준다.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ㄷ)
(ㄷ)
토끼 돌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ㄷ)
(ㅎ)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하룻강아지도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자리면 산다.

3.2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이 절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동물속담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했다. 3.1 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선행 연구에서 여러 교재에서 제시된 동물속담을 각각 정리하고 모아서 총목록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난이도별로 중국과 한국의 교재에 제시된 동물속담을 정리해서 비교하였다.

먼저 ZHAO WEN XUAN(2013)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에서 중국내 한국어교재로 사용하는 중국 25개 대학교가 공동 집필한 『표준한국어』(1-3권), 북경대학교 『한국어』(1-4권), 연변대학교 『한국어회화』(초급 상하, 중급 상하, 고급 상하) 나타난 동물속담을 제시하였다.¹⁸⁾

< 표 15 > 중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ZHAO WEN XUAN, 2013)

학교	단계	속담	개수	총
----	----	----	----	---

18) zhao wen xuan. (2013)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수			
중국25개 대학교	초급	없음	2	11			
	중급	없음					
	고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북경대학교	1권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7				
	2권	꿩 먹고 알 먹는다.					
	3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쇠귀에 경 읽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4권			없음		
		연변대학교			초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2
					중급	쇠귀에 경 읽기.	
고급	없음						

다음으로 Shao Juan(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에서 중국 내 한국 교재 북경대학교 『한국어』(2008,1-4권) 연변대학교 『기초한국어』(2008,1-4권), 중국 25개 대학교 『표준한국어』(2008,1-3권)¹⁹⁾을 조사하였는데 위의 연구와 다른 것은 연변대학교의 교재에 차이가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 표 16 > 중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Shao Juan, 2010)

학교	단계	속담	개수	총 수
북경대학교	1권	없음	7	18
	2권	가재는 게 편이다.		
		꿩 대신 닭.		
	3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쇠 귀에 경 읽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4권	없음		
연변대학교	1권	없음	9	
	2권	우물 안 개구리.		

19) Shao Juan.(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3권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소 닭 보듯.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4권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중국 25개 대학	1권	없음	2	
	2권	없음		
	3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주지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연구」에서 중국 내 한국어교재 중국 25개 대학교 『표준 한국어』(2006년,1-3권), 북경대학교 『한국어』(2006년,1-4권), 연세대학교 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이다.

< 표 17 > 중국 내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동물속담 (주지연, 2012)

학교	단계	속담	개수	총 수
중국 25개 대학	1권	없음	2	23
	2권	없음		
	3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북경대학교	1권	없음	8	
	2권	가재는 게 편이다. 꿩 먹고 알 먹고.		
	3권	꿩 대신 닭.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쇠 귀에 경 읽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4권	없음		

연세대학교	초급	없음	13	
	중급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물 안 개구리. 소를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고급	쇠귀에 경 읽기.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 내 한국어 교재들의 동물속담 목록을 모두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 표 18 >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동물속담 목록

학교	속담	개수	총 수
중국25개 대학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2	33
북경대학교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꿩 먹고 알 먹는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쇠 귀에 경 읽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가재는 게 편이다. 꿩 대신 닭.	10	
연세대학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12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물 안 개구리.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쇠 귀에 경 읽기.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연변대학교	우물 안 개구리.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소 닭 보듯.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지다.	9	

< 표 19 > 중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목록

	속담	총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꿩 먹고 알 먹는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쇠 귀에 경 읽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가재는 게 편이다. 꿩 대신 닭.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23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물 안 개구리.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뜬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소 닭 보듯.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지다.	
총수		23

다음은 위에서 정리한 목록을 난이도 별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 표 20 > 중국 내 한국어교재 나타난 동물속담 난이도 비교

속담	학교												총 수
	중국25개대학교			북경대학교			연세대학교			연변대학교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	○			23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									
꿩 먹고 알 먹는다.					○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			○		
쇠 귀에 경 읽기.					○				○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					
가재는 게 편이다.					○								
꿩 대신 닭.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우물 안 개구리.								○			○		

우물 안 개구리.
(ㄱ)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ㄴ)
(ㄷ)
(ㄹ)
(ㅎ)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 한국어 교재와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 정리한 동물속담을 국가별, 급별 난이도별로 정리하였다. 이것으로 같은 동물속담이라도 한국 내 교재와 중국 내 교재에서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2 > 한·중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동물속담의 난이도 비교 목록

속담	한국			중국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	
꿩 먹고 알 먹는다.			○			○
가재는 게 편이다.			○			○
꿩 대신 닭.			○			○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한다.			○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 한다.			○			○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지다.			○	○		
쇠 귀에 경 읽기.		○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	
승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뜬다.			○			○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		○	
소 닭 보듯.		○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	
우물 안 개구리.		○			○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			○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

IV. 한·중 동물속담의 비교

4.1 소재와 내용 비교

한국과 중국의 속담에 사용된 소재는 한국과 중국의 오랜 생활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속담 속에 들어있는 양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 수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같은 소재 같은 의미, 같은 소재 다른 의미, 다른 소재 다른 의미로 속담을 나누어 놓은 속담의 선행연구²⁰⁾를 참고하여 동물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속담을 정리했다. 그리고 속담의 의미를 찾아서 속담 속에 들어있는 동물의 특징을²¹⁾ 조사하고 문화를 비교해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4.1.1 같은 소재 같은 의미

한국어 교재 속의 동물속담 중에서 중국의 속담과 소재와 의미가 모두 같은 것이 있다.

① 한국: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풀이>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마땅한 일을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不入虎穴, 焉得虎子

<풀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느냐? 뜻 하는 바를 이루려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

<문화비교>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호랑이의 특질은 용맹, 위무(威武), 강직하고 흥포하다. 그래서 호랑이는 보기만 하고도 두려워서 가까이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 불릴 만큼 위엄이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랑이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하여 용맹, 명예, 권세, 관직, 군대, 승리 등의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호랑이는 인간 자체의 힘만으

20) 전흥화. (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1) 천진기.(2003).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p. 180

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대상이다.

② 한국: 우물 안 개구리

<풀이> (1) 넓은 세상의 형편을 모른다는 뜻.

(2) 견식이 좁아 저만 잘 난 줄 아는 사람을 이름.

중국: 井底之蛙(정저지와)

<풀이> 넓은 세상의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화비교> 동물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 받기도 하고 우리 사회생활에 크게 관련을 맺었으며 속담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개구리는 전원생활과 관련이 많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사회생활은 비슷해서 형태나 의미가 일치 하는 속담이 나타난다.

③ 한국: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풀이>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이다.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小时偷针 大时偷牛

<풀이> 어릴 때는 바늘을 훔치고 커서는 소를 훔친다.

<문화비교> 양국에서 소가 근면하고 편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는 사람한테 충실하고 성실하다. 또, 재산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다. 옛날에 한국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가 농사일의 중요한 도구였다. 또 운송할 때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소를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한다. 중국도 같이 생각이 있다. 옛날에 중국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를 농사할 때 많이 썼고 그래서 소는 농사할 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또 소가 있는 집은 잘 살아서 소는 재산이 많다는 좋은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위에 속담에서 소는 큰 것이라는 뜻이다. 도둑질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커서 그때 가르치면 고칠 수 없다.

④ 한국: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풀이> 호랑이가 죽은 다음에 귀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생전에 쌓은 공적으로 명예를 남기게 된다는 뜻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에 보람 있는 일을 해놓아 후세에 명예를 떨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虎死留皮 人死留名

<풀이>: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겨야 함을 이르는 말.

<문화비교> 호랑이는 양국 속담 중에 많이 나타나는 동물이다. 양국 문화에서 호랑이는 중요한 소재이다. 동물 중에 왕이기 때문에 위신과 성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중·한 양국 문화 중에서 “유가”문화를 중요하게 전수하고 계승하기 때문에 사람의 명예가 죽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호랑이가 죽으면 자기의 제일 중요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중요한 명예가 남겨야 한다.

⑤ 한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풀이>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逐鸡之狗 徒望房顶

<풀이> 닭을 쫓는 개가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보고 포기한다.

<문화비교> 개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한 동물이다. 개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충성심”이다. 중국에서는 개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친구이다. 또 집을 지키는 보호자이다. 하지만 중국속담 중에 나오는 개는 좋은 의미보다 나쁜 점을 더 많이 제시한다. 한국 속담 중에는 충성과 보호자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4.1.2 같은 소재 다른 의미

한국어 교재 속의 동물속담 중에서 중국의 속담과 소재가 같으면서 의미가 다

른 것이다.

① 한국: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풀이>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堂狗三年作风月.

<풀이> 이전 중국 관리사회의 무능한 사람들이 개처럼 서재에서 삼년 살면 맑은 바람과 맑은 달에 대하여 시를 짓고 즐겁게 논다.

<문화비교> 개는 양국에서 대표적인 충성심을 가진 동물로 생각되고 똑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위의 속담을 보면 소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양국의 사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게 나온다. 한국 속담 중에는 개가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옛날에 관리가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며 즐긴다는 의미를 가진다.

② 한국: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풀이> 아무리 보잘 것 없고 흔한 것일지라도 정작 꼭 쓸데가 있어서 찾으면 드물고 귀하다는 뜻.

중국: 狗咬吕洞宾.不识好人心.

<풀이> 개가 여동빈을 문다.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문화비교> 한국에서는 보잘 것 없고 흔한 물건이라도 꼭 필요한 때에 찾으면 드물고 귀하여 잘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동빈은 신선인데 사람들이 몰라보았다.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니 개는 더욱 몰라보고 물거나 짓는다는 뜻이다.

4.1.3 다른 소재 같은 의미

이번에는 다른 소재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동물속담을 살펴본다.

① 한국: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풀이> 제가 저지른 나쁜 일이 드러나게 되니 어떤 수단을 써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挂羊头卖狗肉

<풀이>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팔다. 좋은 명의를 간판으로 내 걸로 실제로는 열등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속과 달리 겉은 그럴 듯한 행동으로 대중을 속이는 행위를 비유한다.

<문화비교> 한국 속담에서는 닭과 오리발로, 중국 속담에서는 양의 머리와 개고기로 표현했다. 이 속담에서는 양국에서 사람들이 흔히 먹는 고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중·한 양국에서 생활습관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히 형태가 다른 속담이지만 의미가 같다.

② 한국: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풀이>: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중국: 隔墙有耳

<풀이> :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된 는 말.(벽에도 귀가 있다.)

<문화비교> 새는 주로 낮에 활동한다. 그래서 낮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쥐는 반대로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 속담에는 낮이나 밤이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담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새나 쥐대신 벽에도 귀가 있다는 속담을 사용한다.

③ 한국: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풀이> :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好了伤疤忘了疼

<풀이> : (상처가 낫자 아픔을 잊어버리다.) 과거에 빈첸했던 사람이 지난날의 어려웠던 일은 잊어버리고 잘난체 한다는 뜻.

<문화비교> 개구리는 전원생활과 관련이 많아 한국 속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개구리와 올챙이처럼 많이 달라졌다고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아프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④ 한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풀이>: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城门失火, 殃及池鱼

<풀이> 성문에 난 불을 끄려고 해자의 물을 다 퍼 써서 물고기가 말라 죽다.

<문화비교> 중국과 한국의 사회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가 같은 속담을 많이 나타난다. 속담은 대부분이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총회한 것이다. 또 속담은 글이 간결하고 말이 생동적이다. 속담은 암시를 많이 쓰이다. 그 위에 속담을 같이 암사를 쓰고 강한 는 사람(동물),

⑤ 한국: 쇠귀에 경 읽기.

<풀이>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다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중국: 对牛弹琴

<풀이> 소 앞에서 금을 연주하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다.

<문화비교>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속담이다. 중·한 양국에서 소의 이미지는 착하고 온순하다. 하지만 이 속담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다른 것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소가 성격을 나타낸다. 중국에서 “牛脾气(소성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성격을 형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하는 것을 말한다.

⑥ 한국: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풀이>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人有失足马有失蹄

<풀이> 사람이 실족할 날이 있고 말은 말굽을 잃을 때가 있다.

<문화비교> 원숭이는 항상 똑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 실제로 원숭이는 사람과 제일 비슷한 총명한 동물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원숭이가 좋은 점을 나타내는 속담은 적은 편이다. 또 12지 동물 중에서 중국과 한국의 기본적인 가장 다른 동물이다. 중국에서 원숭이 길조로 비유되고 한국에서는 원숭이를 기본적으로 기피한다. 위에 양국 같이 속담 나오지만 중국에서도 다들 비슷한 속담을 있고 예: 老虎也有打盹的时候.(호랑이도 졸 때가 있다). 智者千虑 必有一失.(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천 번의 생각 중에 한 번 찌름 반드시 실수를 한다.)

⑦ 한국: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풀이>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

중국: 瓦片也有翻身日

<풀이> 기와도 뒤집어 질 날이 있다.

<문화비교> 쥐는 어두운 곳을 하여 쥐구멍도 항상 컴컴하다. 그러나 어느 날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보통 운수가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중국 속담에는 지붕 위의 기와도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뒤집어 질 때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⑧ 한국: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여워한다.

<풀이> 털이 바늘같이 꺾끗한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털이 부드럽다고 옹호한다는 뜻으로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은 모르고 도리어 자랑으로 삼는다는 말. (아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는 말.)

중국: 乌鸦也说自己孩子漂亮.

<풀이> 까마귀도 제 새끼가 예쁘다고 한다.

<문화비교> 고슴도치는 몸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쁘게 봐 줄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다. 중국에서는 까마귀가 항상 불길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속담을 보면 혈육 간의 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중국에서 다른 표현의 같은 의미를 가진 속담이 또 있다. “虎毒不食子.” (호랑이가 지독하지만 자식을 먹지 않는다.) 즉 지독하기로 이름 난 호랑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아끼기 때문에 자식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나 갖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⑨ 한국: 고양이 쥐 생각하다.

<풀이> 속으로는 해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당장에라도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모양을 이르는 말.)

중국: 猫哭老鼠假慈悲

<풀이>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우는 격으로 가짜로 자비를 베풀다.

<문화비교> 쥐와 고양이가 항상 대비되고 쥐는 약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쥐와 고양이는 천적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속담은 양국에서 자주 보인다. 이 속담의 의미는 같지만 중국 속담에서 “假慈悲”로 속담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속담속의 “생각하다”는 중국 속담 속의 “哭”의 의미와 “假慈悲”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⑩ 한국: 독 안에 든 쥐.

<풀이>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말함.

중국: 瓮中之鳖.

<풀이> 갇혀서 도망갈 수 없는 자라.

<문화비교> 한국에서는 독 안의 쥐로 표현한 것을 중국에서는 독 안의 자라로 표현했다. 한국에서는 잡아 없애야 하는 것이 쥐인데, 중국에서 자라는 먹

기 위해 잡는 것이다. 자라를 잡을 때 독을 이용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⑪ 한국: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풀이>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挨着铁匠会打钉 挨着木匠会拉锯.

<풀이> 대장장이와 가까이 하면 못을 칠 줄 알고 목수와 가까이 하면 톱을 켤 줄 안다.

<문화비교> 속담에는 양국인의 사회와 문화가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 속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에서 살펴보면 서당에서 글 읽는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다. 이것과 같은 의미 속담에는 “耳熟能详”(귀에 익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다)가 있다.

⑫ 한국: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린다.

<풀이>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낼 것을 이르는 말.

중국: 一朝被蛇咬, 十年怕井绳

<풀이> 뱀에게 물린 적이 있는 사람은 우물의 두레박줄을 보고도 무서워한다.

<문화비교> 한국에서는 자라를 보고 놀라서 자라와 비슷한 색깔과 모양을 한 솥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뱀과 두레박줄로 비유했다. 중국에서 뱀은 나쁜 짓을 하는 대표자로 상징되고 자라는 좋은 음식 재료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속담 속에 나타난다.

⑬ 한국: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풀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初生牛犊不怕虎.

<풀이> 막 태어난 송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감히 상대도 되지 못하는 것이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것을 가리키는 말.

<문화비교> 이 속담은 한국에서 강아지를 쓰고 중국에서는 송아지를 쓴다. 범의 특질은 용맹, 위무, 강직하고 흉포하다. 그래서 호랑이는 보기만 하기도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는 근면하고 편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범이 무섭기 때문에 소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지만 막 태어난 강아지와 막 태어난 송아지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범을 보면 무서워하지 않는다.

⑭ 한국: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풀이>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아니한다는 말.

중국: 兔子急了还咬人呢.

<풀이> 토끼가 궁하면 사람을 무는 법이다.

<문화비교> 지렁이가 너무 작아서 항상 약자이다. 그러나 그런 지렁이도 밟히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는 지렁이 대신 토끼를 속담의 소재로 사용했다. 이 속담은 토끼는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담이 작다. 그러나 급할 때는 사람을 문다. 같은 의미를 가진 중국 속담에는 “人急造反.狗急跳墙.”(사람은 다 급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개는 다급하면 담장을 뛰어 넘는다)이 있다.

⑮ 한국: 가재는 게 편이다.

<풀이>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一丘之貉

<풀이> 한 언덕에 사는 담비.

<문화비교> 한국 속담에서는 가재와 게로, 중국에서는 한 언덕에 사는 담비로 표현하여 비슷한 형편의 것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했다.

⑩ 한국: 개천에서 용 난다.

<풀이>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중국: 鸡窝里飞出金凤凰.

<풀이> 닭장에서 금봉황이 날아 나오다.

<문화비교> 한국에서 용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 속담의 봉황도 용과 같이 상상속의 특별한 동물이다. 양국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용이나 봉황 모두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고 신화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둘 다 신성하고 부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속담에 많이 나타난다. 또 용 주위에 항상 나타나는 동물이 봉황이다. 용과 봉황이 같이 있으면 제왕과 황후의 권위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모든 부부가 원만히 결혼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⑪ 한국: 꿩 대신 닭.

<풀이> 쓰려는 것이 없으면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다른 것으로 대신 쓸 수도 있다는 말.

중국: 无牛捉马来耕田.

<풀이>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

<문화비교> 한국 속담에서는 쓰려는 것으로 꿩과 그보다 못하지만 대신 하는 것으로 닭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속담에서는 밭을 갈 때 소가 없으면 말로 대신한다고 표현한다. 즉, 음식과 밭가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각각 대신할 수 있는 꿩과 닭, 소와 말로 비유하고 있다.

⑫ 한국: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풀이>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홍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다른 사람에 간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중국: 说曹操 曹操到.

<풀이> 조조를 말하니 조조가 왔다는 의미로 범이 제 소리하면 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화비교> “说曹操 曹操到”. 중국의 삼국지 책에 나오는 사람이다. 한국 속담에는 호랑이로 표현했는데 중국에서는 조조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서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국에서는 조조를 자주 이야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⑱ 한국: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풀이>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 그 중의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

중국: 偷鸡不成反蚀把米.

<풀이> 닭 훔치려다 공연히 쌀만 한 줌 손해 본다.

<문화비교> 한국 속담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닭을 훔치려고 쌀로 유인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형태를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지만 두 속담은 의미가 같다. 모두 욕심을 부리다가 손해를 본다는 뜻으로 양국 모두 경험에서 나온 속담이다.

⑳ 한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풀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생선을 먹을 것이 뻔한 일이란 뜻으로 어떤 일이나 시물을 믿지 못 할 사람에게 맡겨 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黄鼠狼看鸡 越看越稀.

<풀이> 족제비가 닭을 맡으니 점점 닭이 없어져 가산과 재산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 두고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문화비교> 고양이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인간과 가까워 친한 동물이다.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이다. 그리고 족제비가 좋아하는 것은 닭이다. 그래서 이 속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동물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바로 보인다는 뜻이다.

4.2 상징 의미 비교

속담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지금 까지도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형이 비슷한 속담도 많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속담에서 동물을 소재로 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동물의 기본적인 특성과 의미를 알아본 후에 그 동물이 어떠한 측면에서 강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양국의 사회생활과 문화특성을 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국의 동물속담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동물인 호랑이, 개, 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4.2.1 호랑이

동물 문화 중에서도 호랑이 문화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 현상 및 문화영역 등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 문학, 예술 미학 등 호랑이 문화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주, 민속, 종교 신앙 등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중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虎爺’로 떠받들었다. 호랑이는 산신(山神), 토지신(土地神), 성황신(城隍神)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다. 호랑이는 정의 및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 고대부터 황제가 군령을 하달하는 중요한 표지를 ‘虎符’(호부)라고 하였다²²⁾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좋은 생활을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래된 중국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호랑이 문화는 필수적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국으로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하여 “호랑이의 나라”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한국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 등에서도 호랑이는 깊은 관계가 있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좋아하였으며, 다양한 모습의 호랑이 문화, 석상, 조형물, 호랑이 그림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국의 호랑이 문화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호랑이에 관한

22) 王志成, (2010). 『資源與人居環境—虎文化的象征意義』. 四川省國土經濟學研究會, 四川成都出版, p.73.

기록들은 삼국유사, 고려사를 비롯하여 여러 문헌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한국 최초의 호랑이 기록으로는 삼국유사에 서술된 단군신화이다. 그리고 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에 실린 호경(虎景) 이야기가 있다.

호랑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의 상징으로서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²³⁾ 호랑이는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21세기에도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호랑이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동물이다. 88올림픽에서 호돌이는 한국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사용되었으며, 흔히 한반도 지도는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모습으로 그려진다.

산신도(山神圖)에서 종교적 기원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공예품에서도

호랑이는 친근한 소재로 즐겨 활용되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늠름한 기품과 신령스런 자태로서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며, 백수(百獸)의 왕으로 대접받아 왔다.

(1) 호랑이의 기본 속성과 의미

인(寅)은 12지의 세 번째 자리이고 상징동물은 호랑이다. 12지의 호랑이는 방향으로는 동북동시간적으로는 오전3시에서 오전5시달로는 음력1월을 지키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²⁴⁾ 박지원(朴趾源)은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 범의 위용(威容)을“

범은 착하고도 성스럽고 싸움 잘하고도 인자롭고 효성스럽고도 슬기롭고 영험하고도 날래고 세차고도 사납기가 그야말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묘사하였다.

한국의 호랑이 숭배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다. 최초의 곰과 호랑이 토tem신화는 한국의 유명한 고서 『삼국유사』 <기이(紀異)제 1편>에 보인다.²⁵⁾ 호랑이는

23) 김동진. 천명선. (2012:제4절). 「인간 동물 문화 연구-한국호랑이 원형 복원과 호랑이 망팔리 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4) 천진기. 앞의 책, p.137.

25) 이창식.(1999). 『12띠의 민속과 상징 3)호랑이띠』, 국학자료원.

예로부터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엄 용맹의 표본으로 매우 신성한 자리를 지켜왔다 호랑이의 생태적 특징과 대자연에서 왕자王者'의 지위는 사람들의 의식 중 에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원시시대의 여러 민족들은 외경심에서 호랑이를 토tem으로 숭배했으며 호랑이를 조상으로 삼았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꿀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호랑이를 좋아하면서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우러러보았다.²⁶⁾ 이와 같이 호랑이에 대한 한국 민족의 관념 속에는 민족의 지혜가 들어있다. 즉 맹수로서의 호랑이를 강력하고 신령한 존재로 인식한 관념 속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호랑이에게 부여해온 상징성도 깃들어있다²⁷⁾

중국에서도 백수(百獸)의 왕이라 여겨왔던 호랑이는 신비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동물로 인식되었다. 또한 풍수의 세계에서도 예로부터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라는 사신이 있어 각 방위를 수호하며 기의 흐름을 보호한다고 생각 하였다. 이러한 사신(四神)중 세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고 호랑이만이 실존 동물인 것을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중국에서는 그만큼 호랑이를 신비스럽게 여겼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2) 속담에서 호랑이의 이미지

호랑이는 각종 설화나 문학은 물론 속담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호랑이가 한국 속담 가운데서 개 소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등장할 수 있는 것은 호랑이가 국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²⁹⁾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주 용맹한 사람'을 호랑이에 비유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호랑이는 용맹한 사람을 비유할 뿐만 아니라 아주 둔한 사람도 호랑이에 비유한다.

26) 천진기. 앞의 책, p.13.

27) 리명순. 앞의 책, p.11.

28) 송영숙. 앞의 논문, p.30.

29) 이기문의 『속담사전』 에 '호랑이'에 관한 속담이 모두 99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전체 동물속담의 7.26%를 차지한다.

1)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 용맹

호랑이는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다. 호랑이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위풍당당한 품모를 가지고 있다. 산중의 우두머리로 모든 짐승의 왕으로 인간은 호랑이를 사랑하면서도 무서워했다. 한국에서 호랑이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하여 용맹 명예 권세 관직 군대 승리 등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 고대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는다는 것으로 사람의 용맹함을 표현하고 영웅으로 칭했다. 중국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景陽崗(경양강)을 지나가는 술취한 武松(무공)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눕힌 이야기가 유명하다. 거기에 관련하여 ‘沒有打虎將,過不得景陽崗’(호랑이를 때려잡을 장수가 없으면 경양강을 지날 수 없다.)이라는 속담까지 탄생하였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호랑이를 때려눕힌 영웅이 무척 많았다. 이처럼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은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인식이 더해지게 하여 호랑이는 왕이나 군주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를 상징하게 되었다.

2) 두려움 공포와 미움의 대상

예전에 호랑이는 때로 마을에 내려와 가축이나 사람을 해치기도 했다. 이렇게 호랑이에게 당하는 피해를 ‘호환(虎患)’이라한다.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구절은 호랑이의 사나움과 흉악함을 상징한다. 가혹한 정치를 호랑이로 비유한 것은 호랑이라는 동물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사납고 강해서 두려움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사람을 괴롭힌다. 여기서 호랑이는 민중을 괴롭히는 폭군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니 옛날 어린이들은 ‘호랑이 온다. 울음을 뚝 그쳐라.’는 말을 가장 무서워했다. 이처럼 호랑이는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성군보다는 포악한 왕의 이미지로 자주 등장한다. 속담에서 호랑이는 탐욕스럽고 인색하며 또한 악독한 관리들의 횡포를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3) 어리석음

한국 설화 중에 힘이 막강하나 약자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 호랑이는 어리석은 동물이 되어버려 작은 동물로부터 골탕을 먹는 대상이 된다. 주로 토끼와 여우에게 당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에서

‘호랑이를 물리친 토끼가 유명하다. 이러한 설화들에서 민중은 무능력하고 한심한 위정자들의 모습을 호랑이로 상징시켜 풍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중 동물속담에서 호랑이의 상징 의미 분석

호랑이는 양국에서 ‘용맹하다, 우람하다, 위엄이 있다, 잔인하다’는 의미가 있다. 호랑이가 양국 속담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양국 사람에게 익숙한 동물이다. 호랑이가 산에서 왕이기 때문에 위무(威武)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호랑이의 특징과 습성도 속담에 사용되고 있다. 즉 ‘호랑이 입에서 이를 뺨다.’는 중국 속담은 호랑이의 위험성이 ‘이’에 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용맹하고 강한 동물이지만 새끼를 기르는 것을 보면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에서 ‘제 새끼 잡아먹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옛날부터 양국은 유가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혈육 간의 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짐승도 가족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호랑이의 위험성을 잘 표현하는 속담도 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다.’는 어릴 때는 호랑이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크면 위험한 동물이 되어 피해를 당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또한 호랑이는 위험한 일에도 비유된다.

호랑이는 권세가 있어 횡포와 기세가 대단한 사람에 비유된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거슬러 행동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도 있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으로 매우 강한 동물이다. 하지만 호랑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입으로 하고 싶어 말 다 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말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속담도 있다.

호랑이를 소재로 한 속담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표 23 > 호랑이를 소재로 한 속담 목록

속담			풀이
동	한국	①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강한 자의 위세를 빌려 약한 자에 군림하는

행 동 의		빌리다.	비열한 행동.
		②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아낀다.	호랑이 같이 사나운 짐승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범을 길러 화를 받는다.	새끼 범을 데려다 길러 놓으니 맹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인을 해친다는 뜻으로 화근을 스스로 길러서 큰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호랑이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된다.	호랑이 엉덩이를 만질 수 없다.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⑤범의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	호랑이의 입보다 사람의 입을 더 무서워 한다는 뜻이다.
		⑥종이호랑이.	실질적인 힘이 없는 것을 뜻한다.
		⑦호랑이 떼에 들어간 양이다.	어려움에 빠진 것을 뜻한다.
		⑧범 새끼에는 개새끼가 없다.	호랑이는 강아지와 같은 새끼가 없다.
		⑨범이 날개를 얻은 썸이다.	세력 있는 사람에게 권세가 더 붙어 크게 두려울 만하게 됨을 말한다.
		⑩범의 입을 벗어났다	호랑이의 입에서 벗어나듯이.
	중국	①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리다.
		②虎毒不食子.	호랑이는 짐승이지만 제 새끼는 안 먹는다.
		③养虎为患.	후환을 남겨 놓고 스스로 피해를 당하다.
		④老虎屁股摸不得.	스스로 옳다고 의견을 들지 않고 막 일이 일어날듯 하여 몹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⑤人言猛于虎.	범이 무는 것보다 사람의 말로 죽이는 것이 더 무섭다는 뜻.
		⑥纸老虎.	종이에 그린 호랑이처럼 보기에만 무섭지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동 형 이 의		⑦羊入虎口.	호랑이 떼 속에 들어간 양의 신세처럼 꼭 죽게 되었다는 뜻.
		⑧虎父无犬子.	훌륭한 부모에게 못난 자식이 없다는 뜻.
		⑨如虎添翼.	범이 날개를 얻어 더욱 날쌔게 되듯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뜻.
		⑩虎口拔牙.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
	한국	①호랑이 없는 산에서는 토끼가 왕 노릇 한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득세함 이르는 말.
		②호랑이 굴에 찾아가는 격이다.	자기가 스스로 화를 사서 고생하게 된다는 뜻.
		③강 건너간 범이다.	무섭던 범이 강을 건너가 안심할 수 있듯이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뜻.
		④범을 탄 기세다.	사나운 범을 잡아타고 다닐 정도로 위세가 당당하다는 뜻.
		⑤범이 나비 잡아먹듯.	음식 같은 것을 적게 먹어 양에 차지 않을 때 쓰는 말.
	중국	①老虎皮 兔子胆.	호랑이 가죽에 토끼의 담력(外壮内虚).
		②探虎穴.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호랑이 굴에 간다. 앞에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③过江虎	호랑이가 강을 건너다.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이 큰일을 할 때를 알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함부로 일을 맡지 않는 훌륭한 사람을 비유한다.
		④老虎抓蝴蝶吃.	큰 인재가 작은 일에 쓰이다.
이 형 동	한국	①범이 담배 먹던 시절이다.	아득한 옛날 옛적의 일이라는 뜻.
		②범 없는 굴에는 토끼가 스승이라.	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못난 사람이 잘난 체하고 기승하여 뽐낸다는 말.

의		③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소문난 호랑이 잔등이 부러진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면 오히려 좋지 아니한 일이 끼어들기 쉽다는 말.
		⑤한국: 산이 깊으면 토끼와 범이 함께 산다.	들판이 넓은 곳에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같이 살기 좋다는 뜻.
		⑥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쉬우나 입을 열어서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렵다.	한번 호되게 놀란 사람은 그와 유사한 것만 보아도 놀라게 된다는 뜻.
		⑦범도 대호라면 좋아한다.	남을 존대하여 주면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뜻.
		⑧범도 보기 전에 똥부터 싸다.	무섭다니까 미리 겁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뜻.
		⑨범보고 아이를 봐달라는 격이다.	믿음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
	중국	①陈芝麻烂谷子.	묵은 벼, 썩은 깨, 아주 옛일 또는 화제를 비유한다.
		②山中无老虎 猴子称大王.	산에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왕이 된다.
		③老虎也有打盹的时候.	호랑이도 졸 때가 있다
		④人怕出名猪怕壮.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⑤林子大了 什么鸟都有.	산이 깊으면 어떠한 새든 다 있다. 살다보면 별 사람 다 있다.
		⑥一朝被蛇咬 十年怕井绳	어느 날 아침에 뱀에 물린 후 10년 동안 우물에 있는 밧줄만 봐도 놀란다 .
		⑦皇帝还不打报喜的人	황제는 희소식을 전하는 자를 때리지 않는다.

		⑧闻风丧胆	바람소리를 듣자마자 놀라 용기를 잃다 매우 두려워하다는 뜻.
		⑨让狼给羊当保姆	이리로 하여금 양의 보모를 시키는 격이다.

4.2.2 개

개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온 대표적인 동물이다. 개가 언제부터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고 애완동물로 사랑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같이 살아온 개는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줄곧 충성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상징적인 동물로까지 승화되었다³⁰⁾

또 개는 고대사회에 가축의 한 구성원이 된 이래로 사람의 곁에서 줄곧 살아왔던 동물로 인간을 좋아한다는 속성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개가 인간의 말귀를 잘 알아듣거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충직성이나 영리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³¹⁾ 우선 한·중 양국의 사람은 ‘개’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살펴보겠다.

중국에서 개는 인류가 가장 일찍부터 기르던 가축 중의 하나로 그에 대한 문화도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개는 중국 속담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존귀함과 비천함의 결합체이다. 우선, 개는 신성한(神聖) 토템이었다. 중국 유명한 신화 ‘盤古開天地’³²⁾에서 주인공 ‘盤古’³³⁾는 개머리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 선인들이 이 거대한 신을 개 토템의 원조라고 믿었다. 짐승과 사람의 결합체는 치욕이 아니라 신비함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³⁴⁾ 또한,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개가 도깨비나 요괴 등과 같은 잡귀를 물리쳐주고, 질병이나 재앙을 막아주는 등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風俗通義(풍속통의)』 「祀典(사전)」에 보면, ‘太史公記(전사공기)’에 ‘秦德公(진덕공)’때부터 개를 죽여서 성4대문 안에 걸어두고 벌레나 해로운 것과 잡스러운 것을 쫓았는데, 지금은 흰 개를 죽여 그 피를 대문에 뿌린다. 이것이 정월에 흰 개로 액막이하는 풍습이다.’³⁵⁾라고 쓰여 있다. 따라서 개는 사람들에게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충성스런 이미지도 있다. 중국인이 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옛날부터 개가 비천한 존

30) 김선풍 외.(1995). 『열두 띠 이야기』, 집문당, p.348.

31) 김중대, 『개띠: 12띠의 민속과 상징』, 국학자료원, 1997, P12.

32) ‘盤古開天地’: 『山海經』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신화와 현실을 결합해서 巨人 盤古의 신력을 표현하며 우주의 기원을 설명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힘에 대한 幻想과 頌贊이다.

33) 중국 고대 전설시대의 開天辟地(천지개변)하는 신이다.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 徐整의 『三五曆記』에서 나타났다. 그 후에 梁任昉이 쓴 『述異記』에서 盤古의 몸은 天地萬物(천지만물)으로 변해진다고 했다. 『五運曆年記』와 『玄中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34) 이국.(2008)., 『한국과 중국의 動物에 관한 俗談의 比較연구』, 경희대학교, p42.

35) "太史公記秦德公始殺狗磔邑四門以禦忠監 今人殺白犬 以血題門戶 正月白犬血僻除不詳取法與此也" (中華書局輯刊, 四部備要 第63冊 『風俗通義』, 中華書局, 1989, p.36.)

재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狗(구)’자가 들어 있는 사자성어 ‘狗盜雞鳴, 狗仗人勢, 狗屁不如’ 등 전부 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욕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狗崽子’(개새끼), ‘狗娘養的’(개가 기른 것이다.), ‘狗屁’(개소리)등 단어를 통하여 개의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개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울러 갖고 있다. 한국 사람은 개에 대한 친근감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이 개와 친근하게 지낸 예는 한국의 신화, 무속, 풍습, 종교 등의 측면에서 폭 넓게 엿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이규경은 예부터 전해진 개 고르는 법을 ‘雜方相犬之法(잡방상견지법)’에 실었는데, 여기에는 개의 털빛과 모양새에 따른 길흉 조화의 이야기가 등장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많이 기르는 누렁이는 보통 혼한 색이지만, 등빛이 흰 것은 불길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도 있다. 풍습에 있어서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호랑이나 다른 맹수를 물리쳐 주인을 구한다거나, 주인이 억울하게 죽자 관청에 가 짓어서 주인의 죽음을 알린 후, 시체와 범인을 찾아내어 주인의 운수를 갚는다는 등 십여 가지 전설이 전국에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삼복(三伏)에 삶은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무더위를 이기고 허한 기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서 개고기를 보약으로 먹는 풍습도 있다.³⁶⁾ 또 신화에서 개는 나라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물어 가져오게 하는 심부름꾼이자,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이기도 한다. 무속에서 개는 전염병, 도깨비, 잡귀를 물리치는 수호자이다.

유교에서는 개에서도 사람과 같은 오륜이 있다고 한다. 즉, 주인에게 덤비지 않는 것[不犯其主(불범기주)=君臣有義(군신유의)], 큰 개에게 작은 개가 덤비지 않는 것[不犯其長(불범기장)=長幼有序(장유유서)], 아버지의 털빛을 새끼가 닮는 것[父色子色(부색자색)=父子有親(부자유친)], 때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것[有時有情(유시유정)=夫婦有別(부부유별)],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의 개가 다 짖는 것[一吠群吠(일폐군폐)=朋友有信(붕우유신)]³⁷⁾이 그것이다.

36) 장춘매.(2004). 「한.중 동물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p19~20.

37)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개는 길흉조화, 음식과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인 비천한 이미지 등 아주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개가 사람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인을 배려하며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한다는 것이다. 또 개는 주인의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인의 생명까지 지켜주고 주인의 말에 순종적이라 믿어지고 있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나쁜 상황이나 인물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할 때 개가 들어간 문장을 만드는 것에서 개는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 개의 기본 속성과 의미

술(戌)은 12지의 열한번째로서 상징동물은 개다.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로는 음력 9월에 해당하는 방위신이자 시간 신이다. 개는 이 방향과 이 시각에 오는 사기(邪氣)를 막는 동물신(動物神)이기도하다.³⁸⁾

개는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중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는 동물이다. 개는 견공(犬公)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가하면 때론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다.³⁹⁾ 개는 과거 인간이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기르기 시작한 동물로서 긴 세월 동안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매김해왔다

개의 성질이나 유용성면에서 볼 때 개가 인류와 가깝고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 나라의 문화에서 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호감을 갖는다. 개는 인류와 더불어 살아왔기에 그와 관련된 상징성도 다양하다. 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다. 또한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는 대단한 용맹성을 보인다. 특히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닦는 이에겐 적대심, 경계심을 보인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개는 인간을 지켜주고 충성을 다하는 의로운 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항상 부릴 수 있는 존재로 비천한 것을 비유할 때에도 많이 쓰여 왔다. 한국 동물속담 중에서 개에 관한 속담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38) 천진기. 앞의 책, p.375.

39) 윤열수.(2010). 『신화 속 상상 동물 열전』. 한국문화보호재단, p.200.

40) 천진기. 앞의 책, pp.385-386.

(2) 속담에서 개의 이미지

1) 충성보은

한·중 두 나라 민족에게 있어서 개는 오랜 시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내걸고 구하는 충직한 동물의 상징이다. 주인이 보기에 개만큼 친근하게 느껴지는 가축도 없을 것이다. 공자도 자신의 집의 개가 죽자 제자인 자공에게 명해 그 개를 후하게 장사지내주도록 했다는 이야기가<禮記(예기)>에 나온다.⁴¹⁾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개의 충성과 의리를 찬양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에는 의로운 개에 대한 전설이 많다. 한국의 ‘義犬傳說(의견전설)’은 개가 집주인을 구하기 위하여 의로움을 다하다가 죽은 전설이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앞 못 보는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또 길잡이까지 되어주는 의로운 개의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⁴²⁾

중국 민담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⁴³⁾ 이런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개는 자신을 기르던 주인에게 충심을 다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다. 개는 무조건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는 점에서 종종 배은망덕한 사람과 비교되기도 한다.

2) 부지런함

두 나라는 모두 농업국가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근면이 가장 중요한 덕목(德目)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므로 속담에서도 개의 행위를 이용하여 근면함을 표현하고 있다. 개는 부지런한 동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개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습성에서 기인 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3) 비천함과 하찮음

개에 관한 속담을 살펴보면 한·중 두 나라가 모두 개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속담이 훨씬 많다. 민담이나 설화에 등장하는 개의 똑똑하고 영리한 이미지와는 달리 속담에서는 개를 비천한 동물로서 표현한 것이 많다. 개의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미천한 것, 가장 사람답지 못 한 것을 개에 비

41) 孔子的學生及戰國時期儒學學者(戰國時代), 『禮記』, (모로하시데쓰지), 臺灣商務印書館, p.25.

42) 崔常壽.(1985). 『韓國民族傳說的硏究』. 成文閣, p.119.

43) 도정일 옮김.(1999). 『고대중국민담의재발견2』. 세계신화, pp. 471-473.

유하여 왔다. 이러한 비유는 원초적으로 사악하거나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쁘게 말할 때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의 본성, 예컨대 똥을 먹는다거나 흙구덩이에서 노는 습성들이 속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⁴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개는 사람들이 맘대로 몽둥이질과 욕질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주로 주인을 위해 집지키기에 복무해왔다. 개는 이러저러한 습성으로 인한 비천한 특성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구박과 멸시 그리고 버림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개’와 관련한 말에 일정한 사회 문화적 뜻이 부여됨으로써 속된 색채를 갖게 되어 비천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욕설어로도 쓰이게 되었다.⁴⁵⁾

4) 배은망덕

개는 충직한 동물이면서 또한 동물적인 습성으로 인하여 개의 배은망덕한 행위가 속담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속담들은 개를 비유하여 인간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3) 한·중 동물속담에서 개의 상징의미 분석

개는 한국에서 ‘흉악하다, 악랄하다, 교활하다, 소인, 충성스럽다, 보호자, 충성스럽다, 상서롭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는 ‘노비, 비천하다, 지위나 재산을 따지지 마라, 무지스럽다’라는 의미가 있다.

개의 습성을 표현하는 속담으로 ‘마른 뼈 물어뜯다’있다. 이것은 양국 사람들 모두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 입에서 개 말 나온다.’와 중국의 ‘개 주둥이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속담은 개를 비천한 이미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 꾸짖듯 하다.’라는 한국 속담과 ‘개의 피를 머리에 뿌리는 듯 마구 꾸짖는다.’라는 중국 속담은 개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양국에서 개에 대한 이미지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는 속담 속에서 나쁜 점이 많이 나타나서 항상 무능한 사람, 지위가 낮은 천한 사람으로 비유된다. 다음 표는 개를 소재로 한 속담을 정리한 것이다.

44) 김중대.(1997). 『12띠의민속과상징⑩ 개띠』. 국학자료원, 1997.

45) 리명순. 앞의 책, p.109.

< 표 24 > 개를 소재로 한 속담 목록

속담			풀이
동 형 동 의	한 국	①개 못된 것이 부뚜막에 올라간다.	못된 개가 도적은 지키지 않고 더러운 발로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제구실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 된 것만 함을 이르는 말.
		②개는 똥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타고난 본성은 고칠 수가 없다는 뜻.
		③무는 개는 짚지 않는다.	물려는 개는 가만히 있다가 돌연히 물듯이 야심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
		④고기는 흰 개가 훔쳐 먹고 매는 검은 개가 맞는다.	죄를 진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뜻.
		⑤개 꼬리 삼년 굴뚝에 묻어도 황모 안 된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⑥무는 개는 이빨을 보이지 않는다.	무는 개는 물려는 자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히 물듯이 남은 해치려는 사람은 사전에 그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뜻.
		⑦ 개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어린 개도 주인을 보면 반가워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남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
	중 국	①癩皮狗上锅台.	개가 부뚜막에 올라간다.(호의를 무시하다)
		②狗改不了吃屎.	개는 똥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③咬人的狗不叫.	무는 개가 짚지 않는다.
		④白狗偷吃 黑狗遭殃	흰 개가 훔쳐 먹었는데 검은 개가 대신 벌 받는다.
		⑤狗尾巴放上三年 也变不成水貂皮.	개 꼬리는 3년 두어도 담비가죽이 되지 못한다.
		⑥咬人的狗不露齿.	사람을 무는 개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⑦小狗见主直摇尾.	개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동	한	①쥐는 개가 잡고 먹기는 고양이	애쓴 사람은 따로 있는데 보수를 영뚱한 사람

형 이 의 이 형 동 의	국	이가 먹는다.	이 받는다는 뜻.
		②개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개도 주인을 보면 반갑게 맞이하듯이 사람도 반가운 사람은 만나면 다정하게 접대한다는 뜻.
		③상갓집 개다.	주인을 잃은 상갓집 개처럼 돌봐 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
		④울타리가 헐어지니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방비가 허술하면 도둑이 들어오게 된다는 뜻 약점이 있으면 남들이 업신여긴다는 뜻.
		⑤개가 마른 뼈 물어뜯다 .	먹을 것이 없는 음식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 국	①狗拿耗子多管闲事.	개가 쥐를 잡다.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다.
		②狗还知道摇尾巴	개도 꼬리를 칠 줄 안다.
		③丧家之犬.	주인을 잃은 개처럼 싸돌아다닌다는 뜻으로 망국인이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
		④篱牢犬不入你.	울타리를 튼튼하게 엮게 되면 개가 못 들어온다, 처신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 넘여가지 않는다는 뜻.
		⑤狗啃骨头.	개가 뼈를 먹는다. 헛고생한다는 뜻이다.
	한 국	①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아니한다는 말.
		②개 입에서 개 말나온다	입버릇이 나쁜 사람에게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
		③한국: 개에게 호피다.	자신의 신분에 과분한 행동을 한다는 뜻.
		④개 꾸짖듯 하다.	체면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마구 꾸짖는다는 뜻.
	중 국	①人急造反.狗急跳墙.	사람은 다급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개는 다급하면 담장을 뛰어 넘는다.
		②狗嘴里吐不出象牙.	개 주둥이에서 상아가 나올 수 없다 악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다.

		③狗带上帽子装人.	개가 모자를 쓰고 사람인 척한다.
		④血喷头 破口大骂.	개의 피를 머리에 뿌리는 듯이 마구 꾸짖는다는 뜻.



4.2.3 쥐

중국에서 쥐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언어, 문학, 동요 등 사람들의 사회생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싫어하고 외모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전부터 ‘老鼠过街，人人喊打(길에 쥐가 지나다니면 사람들마다 때려잡으라고 소리친다.)’라고 하여 누구나 보기만 하면 잡으려고 하였다.

한국 쥐는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식에는 쥐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재구성되어 있다. 가령 함경도 무가(巫歌)인 창세가(創世歌)에서, 천지창조 때 미륵(彌勒)이 탄생하여 해·달·별을 정돈하였으나 물과 불의 근원을 몰랐기 때문에 생식을 해야만 했다. 이후 미륵이 생쥐에게 물과 불의 근원을 물었을 때 이를 가르쳐 준 대가로 이 세상의 뒤주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쥐는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현자(賢者)와 같은 영물로 등장한다.

흰쥐가 적진에 들어가 활과 화살을 쏘아 적을 도망가게 하고 죽어 그 쥐를 제사하는 서도신사(鼠島神祠) 전설도 있다. 쥐는 흠치는 행위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반면에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는 근면성이 높이 평가되어 부와 재물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⁴⁶⁾

(1) 쥐의 기본 속성과 의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설령 해로운 것이라도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 있다. 쥐는 인류와 더불어 살면서 인간의 생활 주변에서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쥐는 12지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동물이다. 12지의 쥐(子)는 방향은 정북(正北),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새벽 1시 달로는 음력 11월을 지키는 방위 신이자 시간신이다. 자시는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기존의 질서를 마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다음날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⁴⁷⁾

쥐는 생활력이 왕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쥐는 인간이 먹는 것은 무엇이든 잘 먹는 잡식성 동물이며 영리하고 체구가 작아 행동이 재빠르다. 또한 쉼새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함이 있고 먹을 것을 저장하는 저축성도 있다.

46) [네이버 지식백과] 쥐의 신화와 상징 (두산백과)

47) 천진기, 앞의 책, p.67.

쥐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4분의 일 이상 되는 먹이를 먹어야하며 3일간을 굶으면 죽기 때문에 식량을 찾아 부지런히 헤맨다.⁴⁸⁾ 쥐들의 생활방식은 인간의 사회 생활과 닮은 점이 많다. 무엇에건 가까워지려고 하는 친근감을 발휘하나 몸집이 작아서 스스로 위기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 또한 쥐는 지진이 나 화산활동 등의 천재지변을 미리 감지하는 감각을 갖고 있다.⁴⁹⁾ 다산성으로 인한 생식력, 근면성과 저장성으로 부자 예지력 때문에 신앙의 대상으로 상징되고 있다.

반면에 쥐라는 동물은 생태적 습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실생활에서 음식물을 훔칠 뿐만 아니라 병균을 옮기는 등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쥐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2) 속담에서 쥐의 이미지

1) 다산과 부귀의 상징

옛날 중국에서는 별이 흩어져서 쥐가 되었다고 하는데 따라서 쥐의 수가 무수히 많아졌다고 한다. 쥐는 생태학적으로 왕성한 번식력을 지녔기에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쥐는 원래 새끼를 자주 많이 낳는 동물인데다 띠와 관계된 12지신에서도 자식이라는 뜻의 자(子)로 표기되고 있다. 자식을 많이 낳는 일이나 곡식이 많아지는 것은 옛사람들이 크게 원했던 일이었으므로 쥐는 상징적인 세계에서 긍정적 동물로 평가받았다⁵⁰⁾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농경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풍요로운 수확을 걷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식량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쥐는 부를 상징한다.⁵¹⁾ 쥐는 선천적으로 눈치 빠르고 쉼 새 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함이 있고 먹을 것을 저장하는 저축성도 강하다. 일반적으로 쥐는 주로 식량 창고나 부엌에서 숨어 살며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놓기 좋아하는 까닭에 사람들은 쥐를 ‘재물’ 특히, 숨긴 재물을 지키는 상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것

48) 천진기. 앞의 책, pp.71-73.

49) 김의숙. 앞의 책, p.21.

50) 박영수. 앞의 책, p.201.

51) 김종대. 앞의 책, p.381.

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습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쥐는 다산 및 재물의 상징으로 비유될 정도이다. 속담에서도 쥐는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표현된다.

2) 약자, 왜소함, 미천함

쥐는 12지 중에서 몸집이 가장 작은 동물로 일반적으로 약자를 상징한다. 쥐의 길모습을 형용하는 속담은 대부분이 하찮은 것을 비유한다. 이는 가늘고 긴 꼬리와 작은 몸집 등에서 오는 이미지 때문인 것 같다. 작은 몸집에서부터 생성된 속담은 하찮은 것이나 좁은 도량 등을 나타낸다. 쥐라는 동물의 외형적 특성으로 ‘쥐구멍’, ‘쥐꼬리’, ‘쥐뿔’ 등에서 나타나듯이 ‘쥐’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보잘것없고 왜소함의 표현임을 쉽게 알수가 있다. 중국에서도 쥐의 담력이 작고 용기가 없음을 상징하여 인간의 성격을 평가하기도 한다. 소견이 좁은 것을 ‘鼠目(서목)’, 소인배를 ‘鼠輩(서배)’라하며 담력이 약한 겁쟁이를 비웃어 ‘鼠膽(서담)’이라고한다. 이렇듯 쥐는 동물 중에서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 영향으로 사람을 경멸하거나 업신여길 때에는 언제나 쥐를 예로 들었다.

3) 도둑, 수탈자, 간신배

한국의 문화 속에서 쥐는 대체로 수탈자나 간신배로 상징된다. 쥐를 도둑으로 표현한 것은 식량을 훔쳐먹는 쥐의 습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문학작품에서도 쥐의 모습을 도둑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묘사했다. 정약용의 시 <이노행狸奴行>⁵²⁾에

서 쥐는 백성의 곡식을 수탈하는 관리 혹은 궁궐에서 국고를 탕진하는 간신배를 상징한다.

중국 고전시가 『詩經·魏風(시경·위풍)』 <石鼠(석서)>에서 쥐는 곡식을 빼앗아 먹는 동물로 나오는 데 이는 춘추시대 위나라 백성들이 당시 관리들이 강제로 징수하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겪는 고통을 호소하는 시이다. 석서는 큰 쥐를 뜻하는데 ‘가렴주구’(苛斂誅求), 즉 고혈을 짜서 착복하는 악한 관리를 비유한다.

52) 정약용의 시<이노행狸奴行> ‘들쥐는 구멍파서 이삭 낱알 숨겨두고 집쥐는 이것저것 안 훔치는 것이 없네. 백성들은 쥐등쌀에 나날이 초췌하고 기름 말라 피 말라 뼈골 마저 말랐다네.’

속담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쥐는 도둑을 상징할 때에 많이 쓰인다.

(3) 한·중 동물속담에서 쥐의 상징의미 분석

쥐는 한국에서 ‘근면하다, 풍요롭다, 탐욕스럽다’는 의미로 표현된다. 중국에서는 ‘가만가만, 담이 작다, 비천하다’라는 비유를 할 때에 사용된다.

쥐는 속담 중에서 항상 근면하고 담이 작은 것으로 비유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고양이랑 항상 대비되어 나온다. 양국 사회생활이 비슷해서 생활 중에서 축적한 경험도 같아서 같은 속담도 나타난다. 무서운 사람 앞에서면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속담으로는 ‘好像老鼠见了猫’(쥐가 고양이를 본 것 같이) 무서워 한다는 뜻이다.

속담 속에서 쥐는 항상 약자로 나오고 고양이는 쥐에 대비를 관계는 보인다. 현실에서 쥐는 늘 고양이에게 꿈쩍하지 못한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반항한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다.

양국 속담에 ‘쥐 대가리 내밀듯 한다.’와 ‘鼠首兩端’는 유사한 표현 형식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을 망설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쥐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유부단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쥐를 소재로 한 속담을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 25 > 쥐를 소재로 한 속담 목록

속담			풀이
동 형 동 의	한 국	①고양이 앞에 쥐(쥐걸음).	몹시 무서워서 찢찢맬 때 쓰는 말.
		②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약자인 쥐가 궁지에 몰리면 강자에게도 덤비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③쥐 잡으려다가 동네 문 부순다.	일맥상통 하는데 하찮은 일을 하다가 손해만 많이 당했다는 뜻이다.
		④쥐가 길을 건너면 사람마다 때려잡으라고 소리친다.	해를 끼치는 놈은 누구나가 미워한다, 나쁜 사람은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
		⑤고양이와 쥐가 같이 잔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결탁하여 나쁜 짓을

			한다는 뜻.
		⑥쥐 대가리를 내밀듯 한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행동을 망설인다는 뜻.
	중 국	①老鼠见了猫 一动不敢动.	쥐가 고양이를 만나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②老鼠啃猫鼻子.	힘없고 약한 자와 약삭빠르고 힘있는 자의 대결.
		③为打老鼠伤了玉瓶.	쥐가 때릴 때 옥병을 치다. 나쁜 사람을 칠 때 좋은 사람을 같이 치다.
		④老鼠过街人人喊打.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나쁜 사람을 상징한다.
		⑤猫鼠同眠.	고양이와 쥐가 같이 잠을 잔다. 상하가 서로 결탁하여 나쁜 짓을 일삼는다.
		⑥鼠首两端.	쥐가 구멍에 나갈 때 머리를 내밀고 못하고 망설인다는 말이다. 나갈까 들어올까 생각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동 형 이 의	한 국	①쥐가 없다고 쥐 못 잡는 고양이를 길러서는 안 된다.	일이 현재는 없을지라도 언제 있을지 모르므로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한다는 뜻.
		②늙은 쥐가 쇠뿔도 뚫는다.	늙은이는 경험과 꾀가 많아서 젊은이가 못하는 일도 한다는 뜻.
	중 국	①不可以無鼠而養不補之貓.	쥐가 없다고 쥐를 못 잡는 고양이를 기르면 안 된다.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를 기르는데 쥐가 없으면 고양이를 기를 필요가 없다는 말로 쓸데없는 놈을 기르지 말자는 비유적 의미를 이른다.
		②老鼠钻牛角.	쥐가 쇠뿔을 뚫는다. 문제를 풀 때 잘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힘이 들고 결과를 못 얻는다는 말이다.
이 형 동 의	한 국	①쥐구멍이 소구멍 된다.	작은 화를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큰 화가 된다는 말.
	중 국	①鼠小殺象，蜈蚣殺龍.	쥐는 작지만 코끼리를 죽일 수 있고, 지네는 용을 죽일 수도 있다.

V. 결 론

속담은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법 중의 하나로 속담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여러 각도에서 내용이 다듬어지고 민족 전통 문화를 충분히 반영한 언어이다. 그래서 속담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속담에는 한국인의 사고와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양국의 속담 속에 공동으로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동물들이다. 인간과 동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인간에게 있어 동물은 일정한 상징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일상의 언어 중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속담의 경우에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 동물의 상징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속담에는 동물들의 행동이나 동물의 습성을 비유하여 인간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속담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속담 중에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속담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양국 속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문화의 차이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고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조사를 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속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또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중 속담의 저의 및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사전적인 정의와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 그것을 바탕으로 속담의 정의를 비교해 보았다. 한·중 속담의 특징,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의 동물속담에 관한 내용 구성은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선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신라대학교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어 속담 단행본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1』,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2』, 『살아있는 한국어』 및 『속담100 관용어 100』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의 동물속담에 관한 내용 구성은 중국 25 개 대학교, 북경대학교, 연세대학교, 연변대학교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두 자료

에 제시된 동물속담들을 정리하고 50여 개의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속담으로 알아본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한국어 교육용 동물속담을 다음 3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한·중 같은 소재 같은 의미 속담 중에서 동물을 소재로 하는 속담 둘째, 한·중 같은 소재 다른 의미 속담 중 모두 동물을 소재로 하는 속담 셋째, 한·중 다른 소재 같은 의미 속담 중에서 동물을 소재로 하는 속담이다. 다음으로 한·중 양국 속담 중에서 동물속담의 상징의미를 분석하고 차이를 제시하고 동물의 문화 속성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양국 동물속담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한·중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속담 활용으로 한국어 교육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건국대학교 교재.(2005-2010). 『한국어 1-6』, 건국대학교출판부.
- 경희대학교 교재.(1997-2003). 『한국어 1-6』, 경희대학교출판부.
- 고려대학교 교재.(1989-2003). 『한국어 1-6』, 고려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순우.(2006). 『한국의 속담에서 배우는 지혜 황금열매』, 일문서적.
- 김선정.김성수 외.(2006).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1,2』, 한국문화사.
- 김선풍.(1995). 『열두띠 이야기』, 집문당.
- 김의숙.(1997). 『12띠의 민속과 상징 쥐 띠』, 국학자료원.
- 김정화 외.(2002). 『속담 100 관용어 100』, 국제교육진흥원.
- 김종대.(1997). 『12띠의 민속과 상징 개 띠』, 국학자료원.
- 도경일 윤희.(1999). 『고대중국민담의재발견2』, 세계신화.
- 박영수.(2005). 『유물 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내일아침.
- 서울대학교 교재.(1997-2005). 『한국어 1-6』, 문진 미디어출판부.
- 선문대학교 교재.(2001). 『한국어 1-6』, 생각하는 백성.
- 성균관대학교 교재.(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개정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신라대학교 교재.(2006).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1-6』, 박이정.
- 송재록.(2005). 『쏙쏙 중국어 혈후어 알아?』, 도서출판송.
- 신기철. 신용철.(1989).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
- 연세대학교 교재.(1998-2009). 『연세한국어 1-6』, 연세대학교출판부.
- 윤열수.(2010). 『신화 속 상상 동물열전』, 한국문화보호재단.
- 이기문.(1962). 『속담사전』, 민중서관.
- 이창식.(1997). 『12띠의 민속과 상징 호랑이 띠』, 국학자료원.
- 佚名.(先秦). 『山海經』,
- 정약용.(1994). 『다산 정약용 시선집』, 진명문화사.

천진기.(2003).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최권진.(2007). 『살아 있는 한국어(속담)』, 랭기지플러스.
 崔常壽.(1985). 『韩国民族传说の研究』, 成文閣.
 최창렬.(1999).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中文大辞典』. 台湾 中华学术院, 中华民国62年(1973).
 『中国大百科全书』, 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88).
 (汉)应劭(1989), 『风俗通义』, 中华书局.
 孔子的学生及戰國时期儒学学者(战国时代), 『礼记』, (모로하시 데쓰지), 臺灣商務印書館.
 『标准韩国语 (표준 한국어)』, 北京大学出版社(2006).
 『韩国语(한국어)』, 民族出版社(2006).
 『韩国语教程(한국어 교정)』, 世界图书出版公司(2007).
 徐整,(国时代吴国人), 『三五历记』
<http://baike.baidu.com/view/11017.htm?fr=aladdin>
www.baidu.com 『山海經』, 『三五历记』

2. 논문

김동진. 천명선. (2012:제4절). 「인간 동물 문화 연구-한국호랑이 원형 복원과 호랑이 망탈리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미선.(2005). 「속담을 이용한 중국어 교수법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김선흥.(1998). 「한국 속담의 역사적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5집, 한국구비문학회.
 김영자.(200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김정아.(2002). 「한국어교육에서의 속담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 단천천.(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호랑이’에 관한 속담 교육방안」,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동흡.(2010). 「한·중 동물속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바야르 에르데네.(2014).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동물속담 교육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재홍.(2001). 「한·중 속담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尹銀源.(1999). 「동물을 소재로 한 한국 속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원 석사논문.
- 이극.(2008). 「한국과 중국의 동물에 관한 속담의 비교연구-상징의미 중심으로-」, 경희대학 석사논문.
- 이진선.(2006). 「한·중 속담 비교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논문.
- 임혜진.(2007). 「학습자 수준별 관용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 -의미 투명도와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 석사논문
- 장춘매.(2004). 「한·중 동물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 조문선.(zhao wen xuan). (2013).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조재운.(1988). 「한국 속담의 구조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조주동.(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Vol. 9』, No. 2.
- 주지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王志成.(2010). 「資源與人居環境－虎文化的象征意義」, 四川省國土經濟學研究會, 四川成都出版.
- SHAO JUAN.(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네이버 지식백과] 까마귀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쥐의 신화와 상징 (두산백과).
- www.baidu.com 쥐의 신화와 상징.

ABSTRACT

The 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animal proverbs

Chinese and Korean textbooks as the object

Zhao, Lu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ince ancient times are close as fish and water. Toda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other fields hav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creasingly widespread. As one of the medium of exchange and cooperation, language plays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Language and culture are inseparable. Language not only a special social phenomenon, but also a cultural phenomeno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its ultimate purpose is to be able to use the language with native speaker level communication. proverb is a language has a long history, after a long time of screening and refined compared with fixed content. From various angles reflects a nation's traditional culture, can be said to be a living fossil culture. proverb with its simple form and metaphor, the meaning conveyed by prominent effect. Because of the connotation of irony of life and

lessons of sharp, help the listener understand each other and cause resonance, is widely used in the daily life of language.

Chinese proverb contains the Chinese rich cultural heritage, embodies the Chinese nation has a long civilization history. Korean proverb produced in the Korean nation's production and life, to spread by mouth handed down, close contact with real life, contains the Korean national wisdom and has a certain education significance. The number of animal vulgar appear most is the most common.

This essay aims to talk about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Chinese proverb in animal images on the Korean customs, inspection both countries culture is reflected in languag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connections.

First of all, through the South Korean books published in South Korea, the use of language in schools and Chinese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Korean textbooks, university specializing in the study of Korean materials were compared, sorting out the animal proverb.

Secondly, sorted out the animal proverb proverb for analysis and comparison.

Finally, based on sorting out the animal proverb, culture contrast deep step, to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further deepen to the life in Korea and Korean culture.

Therefore, take the animal proverb as materi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nec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ultures has certain research value and practical significance. Through this research,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eaching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verb, animal proverb, culture, Chinese student for Korean language

中文摘要

通过动物俗谈韩中两国的文化比较

韩城大学大学院

韓國語文學科

韩国语教育専攻

赵璐

韩中两国的关系自古以来就被称为鱼水之交。现今，韩中两国之间，在经济，文化等领域有着日益广泛的交流与合作。而作为交流与合作的媒介物之一，语言也发挥着越来越重要的作用。

语言与社会文化密不可分。语言即是一种特殊的社会现象，又是一种文化现象，学习任何一种外国语其最终目的在于能够使用该语言以母语话者的水平进行沟通。俗谈是语言中历史悠久，经过长时间筛选和提炼的比较固定的内容。能够从多个角度充分反应一个民族的传统文化，可以说是文化的活化石。俗谈以其简洁的形式和比喻，在意思转达方面效果突出。而且由于内涵尖锐的讽刺和生活教训，有助于听者的理解和引起对方共鸣，被广泛用于日常语言生活。

汉语俗谈蕴含着中华民族丰富的文化底蕴，体现着中华民族悠久的文明史。韩语俗谈产生于韩民族的生产生活当中，以口口相传的形式流传下来，与实际生活联系紧密，蕴含着韩民族的智慧并具有一定的教育意义。这其中又数动物俗谈出现的最多，最常见。

本文旨在通过对韩语俗谈和汉语俗谈中动物形象的对比分析，考察两国文化反映在语言上的异同及相互联系，

首先，通过韩国内出版的韩国语书籍，韩国语言学校中使用的韩国语教材

和中国内出版的韩国语教材，大学专修学习的韩国语教材进行对比，整理出其中关于动物的俗谈。

其次，把整理出来的动物俗谈进行分析和对比。

最后，针对整理出的动物俗谈，进行深一步的文化对比，了解韩中两国文化的相同点，不同点，从而进一步加深对韩国生活和韩国文化的了解。

因此，将动物俗谈作为素材，对比分析两国文化间的联系和差异具有一定的研究价值和现实意义。通过这一研究，也将对韩语教育和对外汉语教育产生积极的影响。

【主要語】 韓國語教育，俗談，動物俗談，文化，中國人 學習者